

2026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서기	간사	부의장	의장
정라	최재현	김희철	임진호

회의일시	2026년 8월 25일(화) 11:00	부서	기획처	작성자	간사 최재현
참석위원	의장 임진호, 부의장 김희철, 의원 이형민, 정경은, 김혜숙, 주경화, 박으뜸, 김수영, 박성남 (9명)				
불참위원	의원 정행준, 이종제, 차원, 이윤주, 김경무 (5명)				
회의안건	1안)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안) 최종 의견수렴				
회의내용	내 용				비 고
	별첨자료 참조				
결정사항	1안)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안) 최종 의견수렴 - 원안진행 -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및 이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학사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 추진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 - 다만, 정원감축에 따른 교직원 인력운영 및 보호대책, 구조개편 이후 대학의 구체적인 미래상, 학부·전공 운영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 해당 의견을 사업계획 및 향후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반영한 후 전체 구성원 의견수렴과 이사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				
특이사항					

간서명	박으뜸	주경화
-----	-----	-----

회의 주요내용

1. 개회선언

- 의장 임진호: 재직 평의원 14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여 회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三打>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던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2.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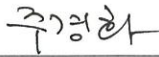
제1안: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안) 의견수렴

- 의장 임진호: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안) 의견수렴의 건」을 상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의 발표를 청하다.
- 기획처 송환 처장: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되, 입학정원 감축과 학사구조 개편을 병행하여야 하는 구조혁신 성격의 사업임을 강조하고, 사업기간, 선정방법, 재정지원규모 등 사업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다. 특히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대학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혁신컨설팅 결과에서도 현재 717명의 입학정원을 유지하기보다 학과평가와 학생충원, 취업성과, 재정성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컨설팅의 Best 시나리오에서는 입학정원을 127명 감축하여 59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설명하다. 그러나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는 2027학년도 62명 선제 감축을 시작으로 2028학년도 30명, 2029학년도 40명, 2030학년도 76명을 추가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509명 수준의 입학정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다만 509명으로의 감축은 단순히 대학 규모를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동시에 항공분야 특성화, 취업연계 전공 확대, 교육과정 재설계, 조직·인력 효율화, 비등록금 수입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대학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다.

교육과정은 항공특성화 전공, 취업연계 전공, 지역연계 전공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기업수요를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현장실습-취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특히 항공분야는 모듈형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비특성화 분야도 단순 축소보다는 취업처와 연계한 전공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을 설명하다.

사업비는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교육환경 개선 및 인건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명예퇴직금 등을 사업비로 직접 집행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정부재정지원으로 기존 대학재원의 부담을 줄이면 자체재원을 구조개선 및 인력 전환 지원 등에 활용할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전일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도 대학의 현재 학생규모와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무겁게 논의하였으며,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특성화와 적정규모화 방향의 구조개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간서명		
-----	---	---

음을 설명하다.

- **의장 임진호:** 설명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대학이 처한 여건상 단순히 금번 재정지원사업 하나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만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대학의 향후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특히 대학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평의원들이 단순히 동의 여부만을 밝히기보다, 현실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선택도 가능하지만, 현재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구조혁신을 추진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입학정원이 717명에서 500명 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게 될 경우 학생 수에 맞춰 교원·직원 등 인력구조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다.
- **기획처 최재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자체에서는 교직원 감축 규모를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교육부가 근로관계나 노동문제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참여조건은 주로 입학정원 감축과 학사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하다. 다만 입학정원이 500명 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현재의 교원·직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대학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사업계획에는 교원의 재배치 원칙과 처우상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명 이상의 입학정원이 감소한다면 실제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살아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그렇다면 교직원의 향후 고용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라고 말하다. 또한 사업계획서 내용중에 사업비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며, 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비할 때 본 사업계획서 내 비전이 대학의 미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니 비전 설정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다.
- **기획처 최재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팅에서는 대학의 적정 인력규모와 관련하여 교원과 직원을 합해 약 20여 명 수준의 감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아직 대학에서 개별 교직원 또는 구체적인 감축인원을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컨설팅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다. 비전에 대한 의견을 집필진에게 전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 **의장 임진호:** 구조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교직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용과 처우가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학이 단순히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보호·전환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의장 임진호:**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의원들에게 묻다.
- 장기근속자만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 방안만으로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교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전환배치, 직무재설계, 재교육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간서명	박은평	주영하
-----	-----	-----

의견을 제시하다.

- **의장 임진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정한 아픔이나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성원이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력운영 원칙과 대책을 조기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 **기획처 최재현:** 우리 대학은 금년 두 차례의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구조개선 컨설팅 결과에서 127명 수준의 입학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유휴자산 활용, 조직 및 인력구조 개선, 명예퇴직, 수익구조 다변화 등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었다고 설명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금번 FIRST 사업과 별개로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따라서 금번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컨설팅 결과에 따른 학사구조·조직·인력·재정 등에 대한 구조개선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FIRST 사업계획은 그러한 구조개선 방향을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구체화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다.
- **의장 임진호:** 의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의장 임진호:** 의원들에게 다시 의견 제안을 요구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내용을 정리하여 종합하다. 금번 회의는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조조정특별위원회 논의 이후 보다 구체화된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계획과 학사구조 개편방향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임을 확인하다. 사업계획 수립·추진 부서에서는 평의원들이 제시한 교직원 인력대책, 구조개편 이후의 미래상, 학부·전공 운영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향후 사업계획 및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시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끝으로 대학이 처한 현실과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시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구성원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이상으로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및 학사구조 개편 관련 의견수렴을 마치고, 금일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전체 구성원 설명회 및 이사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회의를 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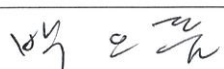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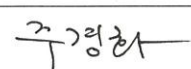
3. 폐회 선언

- **의장 임진호:** 그 밖에 의견이 있는지 한번 더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여 2026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三打)

2026. 8. 25.(화)

작성자: 간사 최재현



간서명		
-----	---	---

2026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일시: 2026. 8. 25.(화) 11:00

장소: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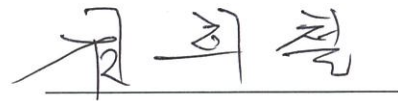
의 장

임 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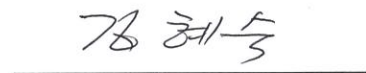
부의장

김 희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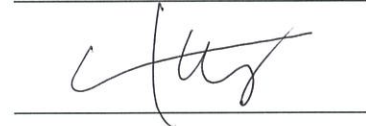
의 원

김 혜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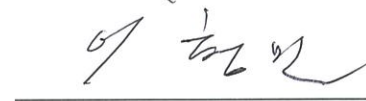
의 원

정 경 은



의 원

이 형 민



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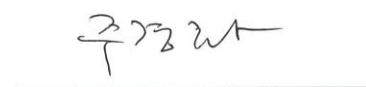
정 행 준

의 원

이 종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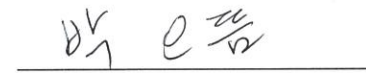
의 원

주 경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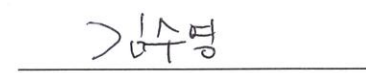
의 원

박 으 품



의 원

김 수 영



의 원

이 윤 주

의 원

차 원

의 원

김 경 무

의 원

박 성 남

